



1 광주를 찾은 각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무양서원에서 선비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2 지난 11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축제에서 농악을 선보였다. 3 지난 8일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선수단이 시민서포터즈와 함께 광주상설국악공연을 관람했다. /조직위 제공

# 지구촌 84개국 6천여명 '우정·화합' 축제

## 광주마스터즈대회 결산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1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84개국에서 수영 동호회원 등 6,000여명이 광주에 모여 수영을 매개로 우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했다. 광주 대회는 수영으로 모두가 하나되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었다.

### ◇국제스포츠 도시

2019광주세계마스터즈대회 성과는 마스터즈 수영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100여개 팀에서 1,000

## 14일간 열전 마무리...편견 없애 감동 드라마

### 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문화도시 저력 알려

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동호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영경기 외에 아티스틱수영, 오픈워터수영, 다이빙, 수구 등의 팀들도 출전하면서 비인기 종목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건강의 운동으로 수영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지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와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및 마스터즈대회 개최를 통해 광주는 언제든 대규모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춰 국제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했다. 수상·숙박·식음료 분야는 물론 조직위원회의 중사자·운영요원·자원봉사자 역량이 커지는 등 두터

운 인적자원 육성이란 효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광주를 수영도시로 만들기 위해 엘리트 선수 육성, 수영 지도자 양성, 수영의 대중화, 생존수영 확대 등을 위한 한국수영진흥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엘리트 수영과 마스터즈 수영 구분없이 수영 스타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가칭)광주수영선수권대회와 수영동호인들을 위한 (가칭)광주수영 마스터즈대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 ◇인간승리 드라마

이번 마스터즈 대회는 감동의 드라마였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연을 간직한

이들이 '수영'을 매개로 광주에 모여 도전하고, 극복하면서 위로하고 위로받았다.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으며 우정을 나누는 축제였다.

장애를 극복하려는 선수, 37년만에 복귀한 수영 여제, 입양아 46년만의 고국 방문, 93세 고령 참가자의 도전, 청각장애인 도전, 91세 어르신들의 노익장, 쌍둥이남매의 봉사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이번 대회 가장 큰 감동은 고령의 참가자들이었다. 나이를 비슷가라도 하듯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도전으로 박수를 받았다.

### ◇문화예술도시

이번 마스터즈 대회는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광주를 찾은 각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광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통문화를 체험

하고 자연을 즐기며 광주의 맛과 멋, 흥에 흠뻑 빠지는가 하면 다채로운 공연·예술 무대는 광주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선수촌 웰컴센터에 마련된 관광상품 예약코너에는 연일 가족·단체 단위로 관광상품을 예약하려는 참가선수와 관광객들로 붐볐다. 광주에는 '외국인 관광 붐'이 일어났다. 광주의 풍경과 문화예술을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와 타쇼(TASHOW) 투어버스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무등산과 전통사찰을 둘러보고 한옥, 다도, 한복,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며 광주의 자연과 문화·맛을 경험했다.

중·장기 패키지 여행도 인기였다. 협력 여행사들의 관광상품인 남해관광 3박 4일 패키지와 할리데이플래너스 9박10일 단체패키지는 하루 2~3팀이 참여하며 남도의 맛과 멋을 즐겼다.

외국인 관광객은 광주의 전통문화에 흠뻑 빠졌다. 전통한옥과 다도·한복·전통놀이·국악공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전통문화관에는 매일 체험을 위해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월봉서원과 무양서원·원효사 등에도 체험을 위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외기간 동안 매일 광주공연마루에서 우리 예술의 진수를 담은 다양한 무대를 선사했던 광주국악상설공연은 외국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매주 토요일 열린 광주프린지 페스티벌, 대인예술야시장, 맥주와 야시장·푸드트럭을 즐길 수 있는 2019 비어 페스트 광주 '일맥상통', 매일 저녁 남부대, 선수촌, 염주체육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등에서 열린 다양한 공연 등 마스터즈 대회 기간 광주 전역은 축제의 현장이었다. /황애란 기자

# 도시브랜드 제고·지역경제 수익 '쏠쏠'

## 참가·등록비 등 17억...숙박·음식점 등 매출 증대

이번 광주 마스터즈 대회는 광주에 적잖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비용을 참가자가 부담하고, 특히 참가자들이 경기 외에도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을 체험하는 마스터즈 대회 특성상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했다.

18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 참가자들이 지불하는 참가비와 경기등록비·숙박비 등 마스터즈 대회 고정수익만

17억여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산출됐다.

참가한 선수와 코치 등 총 등록인원은 총 5,672명이다. 이들은 한 사람 당 5만~8만원까지 직접 등록비를 내고 참가해 등록비로만 약 4억원의 수익이 창출됐다.

선수 한 명이 여러 종목에 걸쳐 출전하기 때문에 경기 엔트리 숫자는 무려 1만 700명에 달했다. 특히 경영 엔트리만 1,024팀에서 9,502명에 달했으며, 여기에 나머지 경기의 엔트리 등록비까지

합하면 대략 3억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수촌은 약 1,200명 이상의 선수와 가족·연락인들이 머물러 약 10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밖에 경기장 내 마켓스트리트 수익과 경기장 주변 상가는 물론 5,000여명의 선수와 코치·가족 등이 선수촌 이외에 광주 숙박업소에 몰려 지역 상가와 숙박업소들도 특수를 누렸다.

선수촌에 숙박하지 않은 선수와 가족들은 지역 내 호텔이나 모텔·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머물렀고, 주변 상가에서 음식을 모두 해결해 주변 음식점들은 평소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광주 도시브랜드 제고효과는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수익이라 할 수 있겠다.

/황애란 기자

# 각국 홍보대사 헌신이 대회성공 역할

## 25개국 26명 활동...홍보·참가 독려 앞장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각국 마스터즈 홍보대사들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18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국제 마스터즈대회 등에서 만난 나라별 스타급 선수와 코치, 연맹 임원들과의 인연을 통해 지난해 25개국에 26명의 명예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했다.

마스터즈 홍보대사들은 조직위를 통해 전달받은 홍보 콘텐츠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전자우편 및 동호인 미팅 등 온·오프라인으로 광주대회를 홍보하고 참가독려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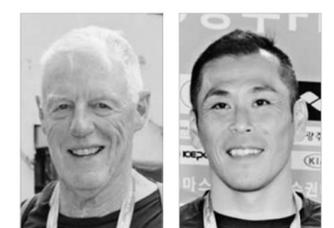
후주 홍보대사인 토니 굿윈씨는 마스터즈대회에서 지금까지 10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9개의 기록을 갱 바 있는 배테랑 선수다. 그는 광주대회 정보공유 전용

블로그를 만들어 한국 음식, KTX 열차 이용방법, 선수촌 편의시설 등을 소개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또 'The Gwang Gang 2019' (2019 광주모임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란 모임을 만들어 8월 광주대회 참가 계획을 함께 준비하기도 했다.

일본 홍보대사인 로스케 이마이씨는 언어 때문에 대회 참가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자국 내 참가 희망자들에게 등록 메뉴얼을 일본어로 직접 번역해 배포했다. 일본 내에서 개최된 크고 작은 마스터즈대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조직위가 직접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는 대회를 선별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독일마스터즈수영연맹 회장이자 마스터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울리케 우바냐는 광주대회 최신정보를 연맹 홈페이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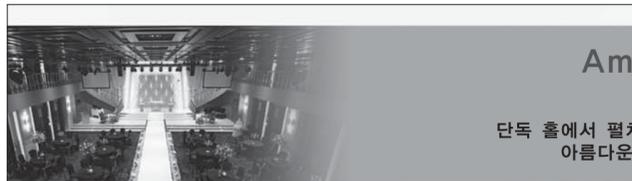
토니 굿윈

로스케 이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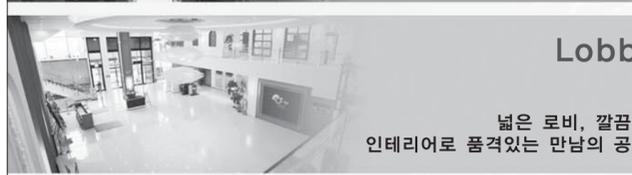
이지에 실시간으로 독일어로 업데이트했다. 프랑스·네덜란드·노르웨이·핀란드 등 자국어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의 홍보대사들은 자국의 수영 동호회원들이 대회 관련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오면 조직위 마스터즈 홍보대사 전용 이메일을 통해 답을 얻어 자국어로 전달함으로써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해주는 역할도 했다.

또 콜롬비아·브라질·멕시코 등 남미지역 홍보대사들은 남미에서 열린 마스터즈 대회 현장에서 광주대회 홍보물과 기념배지를 배부하며 참가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황애란 기자



**Amore**  
단독 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웨딩



**Lobby**  
넓은 로비, 깔끔한 인테리어로 품격있는 만남의 공간



**Fedes**  
동 형태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웨딩홀



**Parking**  
넓은 주차장 완비

제1주차장 제2주차장

# 제이아트웨딩컨벤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당신의 특별한날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Wedding Day**

결혼식 / 피로연 / 가족행사  
기업행사 / 모임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로 269.  
제이아트웨딩컨벤션 대표전화 062) 369-5200 / 010-4515-5203